

매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

# 컬러가 매출을 바꾼다

점포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컬러다.

같은 평수 컬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점포가 넓어 보이는가 하면 고객들의 입맛까지 당기게 한다.

인테리어를 꾸밀 때 색을 이용하는 기본 상식을 정리해 보았다.

글 · 김영주 기자 | 사진 · 김성순, <베이커리> 자료

## 컬러가 분위기를 바꾼다.

요즘처럼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컬러가 제품을 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색은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경향이 다르고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매장의 전체적인 색감에 따라 점포 이미지는 크게 달라지게 마련이다. 고객층이 선호하는 색이나 유행하는 색을 파악해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경쟁점포와 차별화를 위한 첫 단계로 매출 상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 컬러 사용 기본 상식

● 매장에서 색을 사용하거나 P. O. P 등을 진열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가능한 적은 수의 색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색을 많이 쓸수록 각각의 색에 반응하는 속도와 정확성이 떨어져서 색이 선명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 색과 관련해 그 느낌을 연상 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빨강은 뜨거움을, 노랑은 따뜻함을 떠올리게 하며 녹색은 생명이나 젊음을, 파랑은 차가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연상에 따른 색의 반응을 살펴보면 차가움을 나타내는 파란색이나 검정색은 식욕을 떨어뜨리기 쉽다. 녹색은 야채색이라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야채가 아닌 다른 식품을 표현하는 것을 기피해야 하며 흰색은 제품을 맛없어 보이게 하는 일등공신 역할을 한다.

## 컬러를 알자!

### point 1 제과점 & 제품에 잘 어울리는 색

흰색 (White) - 흰색은 색의 단순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색이다. 모던한 이미지를 전달할 때 주로 쓰인다. 흰색은 깨끗함이나 순수함 등 긍정적인 이미지도 강하지만 때로는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하므로 냉정하고 서늘한, 그리고 비인간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과도한 사용은 절대 금물이다.

오렌지색(Orange) - 음식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색이다. 오렌지색은 오렌지의 달콤새콤한 맛이 느껴져 식욕을 높인다.

붉은색 (Red) - 식욕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색. 붉은색은 감각신경을 자극하여 후각, 시각, 청각, 미각, 촉각에 도움을 줌으로써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킨다. 또 붉은색은 실제 그것이 있는 위치보다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따뜻한 느낌을 주고 모든 바탕색들 중 가장 눈에 잘 띄는 주목성이 강한 색이다. 붉은색이라 할지라도 차가운 느낌이 나는 계열이 아니라 따뜻하고 밝은 느낌이 나는 붉은색을 선택하면 좋다.

노란색(Yellow) - 노란색은 따뜻한 분위기와 즐거움을 주며 시각적으로 음식 맛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한다.

황금색 (Gold) - 황금색은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대표 주자. 황금색은 금속성의 차가운 느낌이 덜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느낌이 무겁지 않다. 특별한 제품을 선호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골드 제품은 제품 포장 재질의 색깔은 물론 제품색으로도 매력적이다.

갈색 (Brown) - 편안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갈색의 가구 등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으로는 베이지와 카키 등 갈색만 사용할 때 자칫 잘못하면 매장 분위기가 어둡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흰색이나 연한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주면 신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 point 2 평수보다 넓게~~

매장을 넓게 보이게 하는 색은 단연 흰색과 아이보리 색을 비롯한 파스텔 톤을 꼽을 수 있다. 이때 여러 색깔을 한 공간에 사용하는 것 보다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벽면과 가구 등을 고채도의 밝은 색 또는 화이트 컬러로 통일하면 실내는 깨끗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대체적으로 바닥과 벽은 같은 색 계열로 하고 천장은 그보다 좀더 밝은 색을 사용하면 공간이 넓어 보인다.

동일 색상 배색 - 한 가지 색상을 가지고 명도나 채도를 달리한 톤으로 공간의 일부나 전부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난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준다.

악센트 배색 - 공간 전체적으로 하나의 색을 사용하고 그와 대조되는 색을 특정 부분에 소량 덧붙임으로 전체 상태를 돋보이도록 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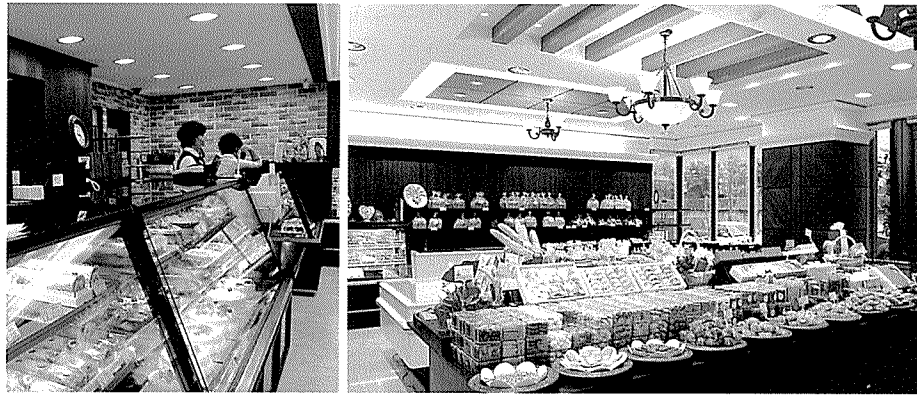
## point 3 제과점에 어울리는 마감재 color 제안

천장은 아이보리와 베이지로 페인팅 한다.

아이보리와 베이지는 부드럽고 편안함을 준다. 흰색이 긴장감을 조성해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는 반면 아이보리와 베이지는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벽면은 밝은 컬러의 페인팅이나 또는 포인트 컬러로서 무늬목이나 타일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색상이 어두운 무늬목은 좁아 보일 수 있지만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다. 돌이나 타일은 차갑고 거친 느낌을 주지만 주위 물체와 조화를 잘 이뤄 깔끔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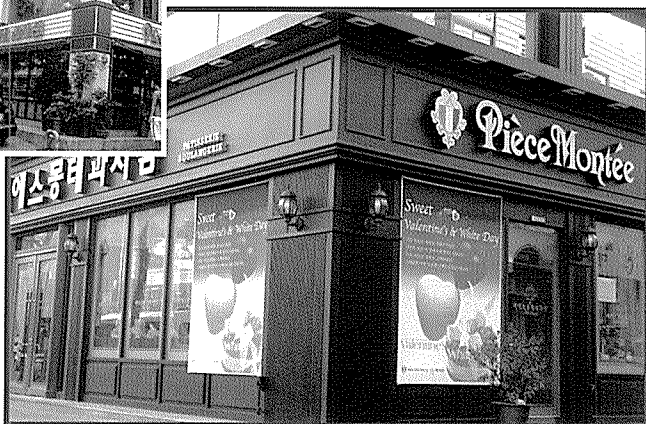


아이보리색 천장과 벽면타일 & 무늬 목(월넛)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한다.

바닥은 짙은 색의 마루나 타일을 깐다.

바닥에 짙은 색깔의 마루나 타일 등을 깔면 차분한 느낌을 준다. 천장이나 벽은 밝은 색깔로 마감해야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할 수 있다. ㉞

... before - 외부 색상을 화이트, 블루로 꾸몄다. 이는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표현해주지만 갓 구워낸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빵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 after - 편안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해주는 색이 갈색이다. 빵 색깔과도 잘 어울려 빵집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눈에 거슬리지 않아 손님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다.



필자 · 김성순 (디에스 대표)  
 약력  
 1962년 02월 23일 출생  
 1986~1988년 본 설계 근무  
 1988~1990년 디자인 포커스 근무  
 1990~1997년 마스타 디자인 근무  
 1998~2001년 프리랜서 활동  
 2002년 디에스 설립  
 빵굽는작은마을, 미인초동과자점 등  
 다수 설계 및 시공